

주간 증시 포커스

북미정상회담 기대·변수 주의

외국인·기관수급 안정 '박스권'

반도체·화학·기계 관련주 관심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로 최종 결정됐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협상을 위해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귀국길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북미 정상회담을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국내증시는 주초 대북관련주와 제약바이오주에 차익실현매도가 증가하며 하락세를 보였지만 주 후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상승 전환했다.

최근 투자자들이 대북관련주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문의도 매우 많은 상황이다.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으로 끝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경제 개방이라는 양국간의 상호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대북관련주의 관심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북관련주는 3월 이후 단기급등으로 매물부담이 커지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해당종목에 개인투자자의 매수가 급증하면서 종목별 신용장고가 크게 증가한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과거 독일 통일과정에서 경험주의 상승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면 남북경협주의 추세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가 바람직해 보인다.

제약바이오주도 지난해 후반부터 지속적인 상승으로 차익매물이 증가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이슈와 신약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방식(자산 또는 비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등으로 투자심리가 불안해진 상황이다.

이번주에도 종목별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6월초 세계최대규모의 암학회인 미국임상종양학회가 예정되어 있고 국내 신약개발 제약사들도 다수 참여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가 지난 8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터키, 브라질 등 이머징국가 금융위기가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수급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박스권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에도 반도체, 화학(2차전지), 기계(굴삭기), 증권업종 등 최근 기관매수가 증가하는 업종에 관심이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사과·배, 생산량·저장량 증가 가격 하락 전망

일부 과채류도 하락 예상

재배면적 감소·기상악화

수박·애호박은 상승할 듯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

지난해 생산량과 저장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했던 배와 사과가 값이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부 과일과 과채류 역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반면, 수박과 애호박, 토마토 등은 전년보다 높은 값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저장량 증가~사과·배 가격 하락 예상 =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장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이 이어지던 사과는 5월 이후에도 여전히 출하량이 전년보다 21% 증가해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5월 사과(후지·10kg)의 평균 도매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100원에 비해 1000~

4000원 상당 떨어진 낮은 2만4000~2만7000원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사과의 개화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전년보다 3일, 평년보다 6일 빨랐지만 4월 상순 갑작스런 저온과 강우·서리 등으로 개화상태는 전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결실에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 사과 생산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관측본부의 분석이다. 다만, 중심화 저온피해로 축화의 착과 비율이 높아져 향후크기와 모양 등 품질의 저하는 우려된다.

나주시의 특산물인 배는 생산량 증가로 5월 이후 출하량도 저장량이 많아 전년보다 19% 증가한 1만8000t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배(신고·15kg) 평균 도매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1000원보다 낮은 2만7000~3만원에 형성될 전망이다.

배 역시 개화는 빨랐으나 개화상태와 꽃수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수량이 불량해 결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상여건에 따라 생육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

도 있는 상태다.

꽃고추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1% 감소하고, 청랑고추는 출하면적 감소에도 단수가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관측됐다. 오이맛고추는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일반꽃고추(10kg) 도매가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3만5000~3만9000원으로 보이며, 청랑고추(10kg)의 가격은 전년 수준인 2만9000~3만2000원 선이다.

◇재배면적 감소·기상악화...애호박·토마토 등 가격 강세 = 토마토와 방울토마토의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겨울철 한파와 봄철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 등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토마토(5kg) 평균 도매가는 전년 8200원보다 높은 9000~1만1000원으로 전망된다. 방울토마토(3kg)도 전년 1만1500원보다 소폭 상승한 1만~1만3000원에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다.

딸기도 겨울철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해 출하를 일찍 끝낸 농가가 많은데다, 봄철 기상여건도

좋지 않아 지난달 반입량이 전년보다 38% 감소했다. 이로 인해 가격은 지난해 2kg 1만2900원보다 높은 1만3000~1만5000원 선이다.

최근 가격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애호박은 여전히 몸값이 올라갈 듯 보인다. 이달 출하량이 13%나 감소했고, 다음달에도 재배면적이 줄면서 4% 감소가 예상돼 가격 또한 전년 8700원(20개)보다 높은 1만1000~1만3000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이도 단수 감소 추세로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백다다기(100개) 2만~2만3000원, 취청오이(50개) 1만6000~1만9000원 선이다.

여름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수박과 참외도 가격이 높을 전망이다. 주 출하지인 경남지역 농가들이 고령화 문제로 재배를 포기한데다, 타지역에서는 겨울철 한파로 생육부진을 겪었기 때문이다.

수박 도매가는 전년 1kg에 2157원이었던 것에 반해, 이달에는 2200~2500원으로 전망된다. 참외(10kg)도 전년 3만8800원보다 높은 3만7000원~4만1000원 선으로 예상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해 임가 가구당 소득 3459만원...전년비 3% 증가

산림청, 임가경제 조사...부채는 5.7% 감소

지난해 임가의 연간 가구당 소득은 3459만원으로 2016년 3358만원보다 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가의 부채는 2931만원으로 전년 3108만원 대비 5.7% 감소, 임가의 소득과 부채는 최근 5년 사이 각각 가장 높고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림청의 '2017년 임가경제 조사결과'와 주요 임가경제지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수실류 판매수입 등 임업소득과 농축산업 수입 등 임업 외 소득 증가에 힘입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임업소득 2%, 임업외소득 3.8%, 이 전소득은 5.5% 증가했다. 임가부채는 임업 이외의 부채가 감소해 가구당

4475만원(전임업가), 3336만원(겸업임가)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자산은 각각 6억6553만원, 4억4801만원으로 임업을 부업으로 하는 임가의 자산 3억7601만원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조경재업 경영임가가 5503만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으며, 밤나무재배업(3694만원)을 포함한 수실류재배업이 3542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송정농협, 하나로마트 개점 5주년 행사

광주 송정농협(조합장 김형덕)은 지난 11일 송정농협 하나로마트 개점 5주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송정농협은 조합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떡매치기 행사와 지역 농산물 시식회 등 농산물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 5주년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감사 할인행사도 진행 중이다. 농축산물과 가공 생활용품들 할

인 판매할 예정이다.

김형덕 조합장은 "송정농협 하나로마트를 애용해주시는 고객들께 큰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 판매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농업인 소득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aT, 나주 명하 쪽빛마을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13일 나주시 문평면 명하 쪽빛마을을 찾아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캠페인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연계해 진행 중이다.

aT 직원들은 이날 마을 주변 영농 폐기물 수거, 잡초 정리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또 분사와 지사 각 소재지에 인접한 전국 19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Kwangju Auction. It features four main sections: '경매 교육(실전 개강)' (Auction Education), '신축 원룸매매' (Newly built studio apartments),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Legal Auction), and '신축 건물 매매' (Newly built building sale).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Contact information is provided at the bottom of each section.